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Perception of Offender Profiling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박지선*, 최낙범**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Jisun Park(jsirispark@hotmail.com)*, Nakbum Choi(nb.choi@hanmail.net)**

요약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재학생 총 156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프로파일링 | 프로파일링의 효용성 | 프로파일러 자질 | 프로파일러 교육 | 경찰대 학생 |

Abstract

Offender profiling, as a crime investigation technique, aims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violent crimes. However, attitude that police investigators hold toward offender profiling is quite skeptical, which prevents offender profiling from making effective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police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d development strategies of offender profiling by examining perceptions of offender profiling among 156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s. Furthermore, a total of 166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ies also participated as a control group. As a result, participants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 offender profiling, in terms of its necessity,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However, they believed that Korean police agencies are not making the good use of offender profiling and that profilers are not necessarily taking the lead in solving cases. In terms of the profiler education,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who showed interest in becoming a profiler did not know what to learn and how to prepare for becoming one.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made.

■ keyword : | Offender Profiling | Profiling Effectiveness | Profiler Qualifications | Profiler Education |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Students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범행 현장에서 나타낸 여러 행동들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제반 특성(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성격 특성, 심리적/정신적 장애, 거주지 등)을 추론하여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의 일종이다[1][2].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행동과 성격 특성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사 전략을 제시하며, 용의자의 유형을 밝혀내어 범위를 좁혀 나가 범인검거에 기여하고, 검거 후에는 효과적인 신문 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3-5].

국내에서는 2002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분석실 소속의 프로파일링 전담 수사관을 시작으로, 2004년 경찰청에 현장감식요원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분석팀(VICAT: Violent Crime Analysis Team)'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들을 채용하는 등 범죄수사에 있어 프로파일링 기법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6]. 2012년 1월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내의 '범죄행동과학계'에서 범죄행동분석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지원하는 행동분석팀을 운영함으로써 프로파일링의 전문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점차 흉포화,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이상동기 범죄' 혹은 '무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문적인 수사 기법으로서 과학적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은 날로 절실해지고 있다[7-9]. 이러한 현상은 학계에서도 프로파일링 관련 연구를 촉발시켜, 특히 연쇄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는 살인범의 범죄 현장에서의 행동 특성을 고찰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범인의 심리와 특성을 추정하며, 살인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10-12]. 또한 성범죄자의 배경 특성을 파악하며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 연쇄 성범죄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들도 발표된 바 있다[6][13][14]. 이렇게 살인이나 성범죄 외에도, 연쇄방화범의 범행수법 분석을 통해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거주지를 추정하거나[15][16],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절도나 강력범죄 중 하나인 강도 등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자 유형을 분류하는 등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17][18].

그러나 프로파일링 관련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행동 유형을 분류한다거나, 연쇄범 등 몇몇 사례들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묘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7]. 다시 말해서 경찰 내부에서 실질적인 수사 기법으로서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과 필요성, 프로파일러에게 필요한 교육과 자질 등에 대해 경찰 내부나 일반인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찰과 관련 교육기관에서 프로파일링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을 저해하는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상급 관리자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프로파일러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프로파일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6]. 또한 일선 수사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미흡한 이해와 편견어린 불신으로, 프로파일러들과의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협조체계가 미약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상호 불신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8][9][19]. 더불어, 프로파일러 및 경찰 지휘관과 일선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파일링 관련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직 내에서 프로파일러의 요건과 자질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프로파일러의 역할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7]. 결국, 급속히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서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대한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

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가 프로파일링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발전 또한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선 수사관을 지휘하고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찰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와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및 효과, 전문적 프로파일러 교육 및 갖춰야 할 자질 등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 지휘관들의 물인식과 이해 부족이 프로파일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미래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찰대 학생들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경찰과 교육기관 내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인지도 등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이 차지하는 현 위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으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며, 향후 프로파일러의 전문성 증대에 대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받아야 할 교육과 갖추어야 할 자질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유용성

프로파일링 기법은 여러 수사기법(범인이 남긴 흔적을 통한 현장 감식 및 DNA 등의 물리적 증거를 활용하는 과학수사, 통신수사 등)과 함께 쓰여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 이렇게 다양한 수사 기법과의 공조 및 수사관들과의 협력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범죄 수사에 있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외에서 실제 경찰들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국 수사관들의 경우 프로파일링이 수사 방향 설정을 주도한다거나 사건 해결 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각각 16.3%, 14.1%), 프로파일링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수사관들은 과반수(각각 53.8%, 8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다시 말해서 이들은 프로파일링이 범인의 신원을 지목하여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 기법은 아니지만, 범죄자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경찰 내부에 존재하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프로파일링을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해주는 수사 기법으로 오해하고 범죄분석요원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파일링 기법의 정확성이나 수사 활용도에 대해 과도하고 성급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25]. 즉, 프로파일러로 범죄분석요원들을 특채한 지 벌써 5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불만이 일선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프로파일링의 사건 해결 기여에 있어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6].

조직 내의 체계적인 협력 관계가 사건 해결의 성패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범죄 수사에 있어, 경찰 수사관 및 지휘관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불신은 총체적 수사 진행에 있어 사건 해결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자 프로파일러의 교육과 자질

효율적 범죄 수사와 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유능한 프로파일러의 선발과 양성을 위하여, 프로파일러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교육 지침에 대한 논의는 장기적인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파일러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프

로파일러 선발과 교육, 체계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7][19].

우선 국내에서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2005년 ‘범죄분석요원’ 채용 시 선발 기준이 “① 심리학·사회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 ② 거짓말 탐지·범죄면수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③ 범죄분석 전문교육수료자, ④ 수사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으로 명시되었다[26]. 경찰은 이에 따라 약 40명 정도를 범죄분석 전문요원(프로파일러)으로 특별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채용 후에는 현장배치 전 기본 교육을 통해 형사법 및 경찰학 등 부족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 명시된 선발 기준이 프로파일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적의 자격요건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명시된 선발기준에서 “관련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고, 단순한 학위나 자격증의 소지가 프로파일러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과연 얼마나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다.

또한, 채용 후 경찰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6][19]. 예를 들어, 경찰에 채용된 범죄분석요원(프로파일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채용 후 받은 교육이 실제로 프로파일링 관련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드러난 바 있다[6]. 따라서 프로파일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타당한 자격요건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선 수사관을 지휘하고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찰대생들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과 필요성, 프로파일러에게 필요한 교육과 자질 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경찰과 관련 교육기관 내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방법

1. 연구 대상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대학 대상자는 2011년 1학기 현재 경찰대학에 재학 중인 156명의 학생(연령 $M=21.3$, $SD=1.01$)이었다. 피험자는 남학생 148명(94.9%)과 여학생 8명(5.1%)으로 구성되었다. 학과 비율은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각각 78명(50%)으로 동일하였다.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73명(4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학년 48명(30.8%), 3학년 33명(21.2%), 4학년 2명(1.3%)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경찰대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일반인들이 프로파일링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 및 지방을 포함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대학생 피험자는 남학생 22명(13.3%)과 여학생 143(86.1%)명, 그리고 성별 표시를 하지 않은 대상자 1명(0.6%) 등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1.4세($SD=8.3$)로, 최소 21세에서 최고 56세까지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생 응답자의 지역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대학생 응답자의 지역분포

지역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제주	합계
빈도	50	28	52	12	15	6	3	166
%	30.1	16.9	31.3	7.2	9.0	3.6	1.8	100

2.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주요 변인들은 크게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의 인지도,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 프로파일러의 자질과 교육,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준비 과정이라는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표 2].

표 2. 분석 대상과 지표

연구 대상	분석 범주	설문 내용
경찰대 학생 및	프로파일링 인지도	처음 알게 된 경로
		프로파일러 개입 국내 실제 사례
		국내 프로파일러 숫자

일반대 학생	프로파일링 필요성 및 유용성	범죄수사예의 필요성
		실제 범죄수사에 대한 효과
		범죄해결 적용에 대한 신뢰성
		사건 해결에서 프로파일러의 주도성
		범죄사건해결에 프로파일러의 기여도
		TV에서와 실제 프로파일러의 유사성
		프로파일러 직업에 대한 호감도
		현재 경찰조직에서 프로파일링 활용도
		신규 프로파일러 채용인원 증가
	프로파일러의 교육과 자질	교육 분야(법학, 의학, 심리학, 경찰행정, 사회학 등)
		필요 자질(명석한 두뇌, 투철한 사명감, 날카로운 통찰력, 해박한 법 지식, 사람에 대한 관심 등)
경찰대 학생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노력과 준비	장래 희망이 프로파일러인지 여부
		현재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을 아는지 여부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기법의 인지도,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인식, 프로파일러의 자질과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의 세 가지 범주는 향후 범포 수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경찰대 학생뿐만 아니라, 경찰의 효율적인 수사 활동으로 범죄로부터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일반인들 또한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두 집단의 결과를 t-test 및 X² 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네 번째 범주인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조직에서 일할 경찰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1.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인지도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프로파일링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경찰대생의 경우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접하게 된 경우가 전체 156명 중 92명으로(5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뉴스·신문’이 41명(26.3%), ‘인터넷’ 11명(7.1%), ‘잡지’ 2명(1.3%), 기타 10명(6.4%)으로 나타

났다. 일반대생의 경우도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경우가 전체 165명 중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64.2%), 그 다음으로는 ‘뉴스·신문’이 42명(25.5%), ‘인터넷’이 3명(1.8%), 기타 경로는 14명(8.5%)이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프로파일러가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대 62.3%, 일반대 59.3%). 또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파일러의 숫자에 대해서 경찰대생은 평균 120.50명, 일반대생은 평균 51.59명이라고 응답하여 경찰대생들이 일반대생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프로파일러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1.80, df=290, p=.071).

이를 종합해 볼 때, 두 집단 모두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지도는 실제 발생사건 등을 통한 지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TV 프로그램 등을 통한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며, 정확하거나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찰 지휘관들의 물인식과 이해 부족이 프로파일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7][19], 유능한 경찰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찰대학의 재학생들의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는 향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율적인 범죄 수사예의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매일같이 발생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얻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얕은 지식과 비현실적 기대는 경찰과 범죄 수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2.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다음의 다양한 문항들을 통해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전적으로 그렇다)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표 3].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설문조사가 7점 척도로 실시되었음을 고려할 때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 그리고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대와 일반대 모두 평균 5

이상). 그러나 국내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경찰대와 일반대 모두 보통을 가리키는 평균 4점보다 떨어지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6][7][9], 프로파일러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프로파일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프로파일링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경찰대와 일반대 두 집단 모두의 인식에 비교적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즉, 앞서 두 집단 모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함을 시사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이 적극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게 드러난 것이다.

표 3. 프로파일링의 필요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경찰대, 일반대 학생 간 인식 비교

구분	대학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수사에서의 필요성*	경찰대	156	5.86	1.000
	일반대	166	6.07	.905
실제 범죄수사에 대한 효과	경찰대	156	5.53	.999
	일반대	166	5.58	.967
범죄해결 적용에 대한 신뢰성	경찰대	156	5.07	.851
	일반대	166	5.23	.857
사건 해결에서 프로파일러의 주도성	경찰대	156	3.71	1.197
	일반대	163	3.70	1.187
범죄사건해결에 프로파일러의 기여도*	경찰대	156	5.01	1.122
	일반대	161	4.69	1.091
TV에서의 역할과 실제 프로파일러의 유사성	경찰대	156	3.54	1.326
	일반대	164	3.82	1.274
프로파일러 직업에 대한 호감도	경찰대	154	5.29	1.351
	일반대	160	5.47	1.202
현재 경찰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	경찰대	155	3.43	1.156
	일반대	164	3.69	1.301

*p<.05

다음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대생들이 경찰대생들에 비해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 df=320, p=0.045$). 그러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실제 범죄 수사에서 갖는 효과나 프로파일링을 실제 범죄 해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국내 프로파일러들이 사건 해결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대생과 일반대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프로파일러들의 활동이 실제로 범죄사건 해결에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이 일반대생에 비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5, df=315, p=0.011$). 그러나 국내의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이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프로파일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나,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에 대해 갖는 호감도, 경찰 조직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대생과 일반대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신규 프로파일러의 채용인원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찰대생은 전체 154명 중 113명(73.4%)이 ‘다소 늘려야 한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20명(13.0%),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가 17명(11.0%),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가 2명(1.3%), ‘현행 제도보다 줄여야 한다’가 2명(1.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대생의 경우에는 전체 158명 중 100명(63.3%)이 ‘다소 늘려야 한다’고 답하여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가 44명(27.8%),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12명(7.6%), ‘현행 제도보다 줄여야 한다’가 2명(1.3%)으로 나타났고,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프로파일러 증원에 대해서는 경찰대생과 일반대생의 대다수(각각 84.4%, 91.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선행 연구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실제 경찰들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선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프로파일링의 사건 해결 기여에 있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전에는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과 수사 활용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만연하였다[6][19][2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효과성, 또한 프로파일러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 향후 프로파일링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3. 프로파일러의 교육과 자질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그림 1). 우선, 법학에 대해 경찰대생은 전체 156명 중 3명(1.9%)만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반면, 일반대생의 경우 약 9.6%(16명) 정도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경찰대생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8.62$, $df=1$, $p=0.003$). 다음으로, 의학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의 6.4%(10명), 일반대생의 12.0%(20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심리학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의 경우 대부분이(139명, 89.1%)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일반대생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143명, 86.1%)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행정학에 대해서는 일반대생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5%(24명)로 나타나 경찰대생에 비해서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21.44$, $df=1$, $p=0.000$). 마지막으로, 사회학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의 5.8%(9명), 일반대생의 19.3%(32명)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대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13.21$, $df=1$,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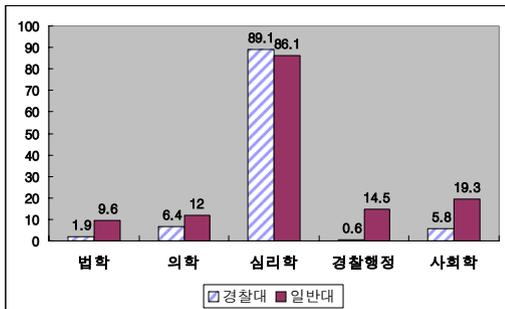


그림 1.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분야(%)

그러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행동과 사회 인구학적 특성(나이, 직업, 전과, 성격 특성, 심리적/정신적 장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4][22][27]. 따라서 전문적인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성격 특성과 심리적 장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 심리검사의 실시와 면담을 위해 심리학적 지식은 필수이며, 범행 현장에서 흉기 사용이나 피해자 부검 결과, 물리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법의학 지식도 필요하고, 범죄자 배경 특성 파악에 있어 해당 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학에 대한 지식도 일정 수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그림 2). 우선, ‘날카로운 통찰력’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의 73.1%, 일반대생의 71.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경찰대생의 16.0%(25명)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일반대생의 경우에는 28.3%(47명)로 나타나 경찰대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X^2=6.99$, $df=1$, $p=0.008$). 이 외에 ‘명석한 두뇌’(경찰대생 9명, 5.8%; 일반대생 4명, 2.4%), ‘투철한 사명감’(경찰대생 6명, 3.8%; 일반대생 8명, 4.8%), ‘해박한 법 지식’(경찰대생 1명, 0.6%; 일반대생 5명, 3.0%)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거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자의 행동과 성격 특성 분석, 신문전략 제시 등을 위해서는 범죄자가 현 시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외에도 과거에 범죄자의 성격 형성이나 대인관계 특징, 사고과정이나 감정 해석의 왜곡,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친 영향 등 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25][28]. 따라서 날카로운 통찰력 외에도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확하고 비판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19]. 물론 이에 앞서, 경찰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법률 지식과 함께 경찰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건 해결과 국민의 보호, 범죄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투철한 사명감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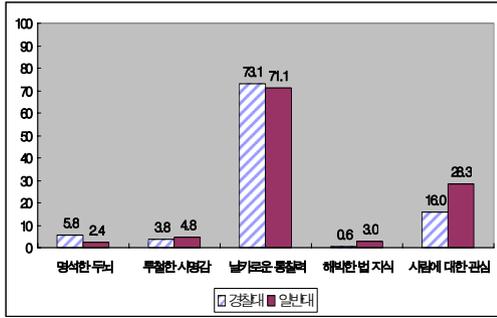


그림 2.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인 선발 기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나 습득해야 하는 지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지침이 없었던 구조적 문제점이[7][19], 본 연구의 인식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경찰대 학생들의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노력과 준비

마지막으로 실제로 향후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프로파일링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본인의 장래 희망이 프로파일러인가에 대한 질문에 경찰대 학생 총 155명 중 42명(27.1%)이 ‘네’라고 대답하였고, ‘아마도’가 41명(26.5%), ‘아니오’가 72명(46.5%)으로 나타났다. 즉,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83명, 5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래 희망이 프로파일러인가에 대한 질문에 ‘네’ 혹은 ‘아마도’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대해서, 현재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76명, 93.8%)였으며, 약 6.2%(5명)만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7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묻자, ‘너무 막연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69명, 90.8%)이었으며, 그

외에는 ‘귀찮아서’(2명, 2.6%), ‘시간이 없어서’(1명, 1.3%),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1명, 1.3%), 기타(3명, 3.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아는가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79명, 97.5%)이 ‘모른다’라고 대답한 반면, ‘안다’고 대답한 학생은 2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향후 범죄수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경찰대 학생들을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지만, 현재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과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프로파일러 선발과 교육, 체계적인 훈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적인 결함[7][19], 미래 유능한 프로파일러의 전문적인 양성을 저해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프로파일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날로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은 날로 절실해지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휘관들의 인식과 이해 부족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일선 수사관을 지휘하고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미래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찰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파일러의 숫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경찰대생은 120명, 일반대생은 51명이라고 응답하여 모두 실제(30~4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프로파일러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국내 범죄수사 체계의 현황과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 증원에 대해서 경찰대생과 일반대생의 대다수(각각 84.4%, 91.1%)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의 응답은 결국 현재 국내 실제 프로파일러들의 숫자(30-40명)는 적정하다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파일러의 숫자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범죄분석 관련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원 확충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25].

선행 연구들에서 실제 경찰들의 설문 조사 결과 프로파일링 기법의 유용성과 수사 활용도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만연하였던 반면[6][19][25],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이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효과성, 또한 프로파일러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선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프로파일링을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해주는 수사 기법으로 오해하거나 사건 해결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하여 프로파일링 기법의 정확성이나 수사 활용도에 대해 의심을 품고 불만을 제기하는 태도들이 드러났다[19][25]. 그러나, 단순히 프로파일링 기법 하나만으로 종래의 수사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던 사건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범죄자의 행동을 통해 유형을 파악하고 배경 특성을 추론하는 데 바탕이 되는 국내 범죄 자료의 축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사건의 현장 행동 특성과 범죄자 배경 특성과의 연계를 밝히는 국내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상당히 성급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비추어, 미래에 경찰 조직에서 일할 경찰대 학생들이 프로파일링의 필요성과 효과성, 또한 프로파일러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프로파일링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경찰대생과 일반대생의

대다수(각각 89.1%, 86.1%)가 심리학 공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법학, 의학, 경찰행정학, 사회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통찰력’에 대해서는 경찰대생과 일반대생 모두 대다수(각각 73.1%, 71.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명석한 두뇌’, ‘투철한 사명감’, ‘해박한 법 지식’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거의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유능하고 전문적인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행동과 제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나 ‘날카로운 통찰력’과 같은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에게 있어서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법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수사관들과의 협력 체계 또한 중요하고[19][21][29], 경찰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형법 등의 법률적 지식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나 ‘날카로운 통찰력’ 등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단편적인 특정 자질에 대한 피상적인 요건보다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파일러의 전문적인 요건과 필요 자질에 대해 학계와 실무진 모두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인 선발 기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나 습득해야 하는 지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체계적인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 발전이나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 프로파일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안내가 전무하고, 그 결과 프로파일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경찰대 학생들이 미래에 프로파일러가 되지는 않더라도, 향후 그들과 협력하거나 그들을 지휘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프로파일러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는 결국 프로파일링 기법의 범죄수사에서의 적용에 대한 회의와 무분별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대학 응답자의 대부분은 저학년 학생들로, 약 78%를 차지하였다(2학년과 1학년 각각 46.8%, 30.8%). 2011년 1학기 현재 경찰대학 교과과정상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인 범죄심리학은 2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일선 수사관을 지휘하고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현재 경찰에 재직 중인 수사관들과 범죄분석요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P. B. Ainsworth, *Offender Profiling and Crime Analysis*, Willan Publishing, 2001.
- [2] J. E. Douglas, R. K. Ressler, A. W. Burgess, and C. R. Hartman,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4, pp.401-421, 1986.
- [3] 임준태, *프로파일링*, 대영문화사, 2009.
- [4] R. M. Holmes and S. T. Holmes,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3rd ed.), Sage Publications, 2002.
- [5] B. E. Turvey,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2nd ed.), Academic Press, 2002.
- [6]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7] 박현호, 오경석, "범죄 프로파일링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경찰 범죄분석요원 및 기존 수사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2호, pp.59-88, 2010.
- [8]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3호, pp.5-31, 2009.
- [9] 박행렬,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9호, pp.47-75, 2010.
- [10] 고선영, "살인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현장행동특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법정*, 제2권, 제2호, pp.135-158, 2011.
- [11] 오윤성, "현장에서의 연쇄행동 평가를 통한 범인 심리 분석 및 행동 추정에 대한 연구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호, pp.563-597, 2006.
- [12] 김경옥, 이수정,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쇄살인 범죄의 유형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성격*, 제19권, 제1호, pp.131-149, 2005.
- [13] 박지선, 박인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62-371, 2011.
- [14] 김지영, 정선희, "한국연쇄성범죄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3호, pp.39-58, 2011.
- [15] 박철현,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p.61-92, 2004.
- [16] 임준태, "연쇄방화범 프로파일링과 이동특성",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7호, pp.369-402, 2009.
- [17] 정덕영,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pp.219-245, 2004.
- [18] 임준태,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한국의 연쇄강력범죄 분석",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2호,

pp.161-188, 2006.

- [19] 허경미,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08.
- [20] 김재민,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09.
- [21] 박광배, 배현정,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의 유용성: 수사실무를 위한 미시적 활용과 정책평가를 위한 거시적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권, 제1호, pp.1-24, 2001.
- [22] R. Ressler, A. Burgess, and J. Douglas, Sexual homicide: Patterns and motives, Lexington Books, 1988.
- [23] 한상암,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5호, pp.153-160, 2006.
- [24] G. Copson, Coals to Newcastle? Part One: A study of offender profiling. Police Research Group Special Interest Series(Paper no. 7), Home Office Police Department, 1995.
- [25]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권, pp.1-21, 2001.
- [26] 경찰청, 범죄행동분석 매뉴얼, 경찰청, 2006.
- [27] A. J. Pinizzotto and N. J. Finkel, “Criminal personality profiling: An outcome and process study,” Law and Human Behavior, Vol.14, pp.215-233, 1990.
- [28] J. W. Osterburg and R. H. Ward, Criminal investigation, Anderson Publishing Co, 2000.
- [29] 권창국, “범죄자 프로파일링 증거(criminal profiling evidence)의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pp.247-280, 2002.

저 자 소 개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심리학과(복수전공, 문학사)
 - 2003년 12월 : University of Liverpool(범죄수사심리학 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2009년 2월 :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CUNY(범죄심리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살인, 성범죄, 프로파일링

최 낙 범(Nakbum Choi)

준회원



- 2006년 3월 :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 2011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 <관심분야> : 공공조직, 정책분석